석유공사, 하울러 광구 원유 발견…

1차 탐사정 시추 9개월만에 원유 산출 … 2개 광구도 탐사작업 진행

한국석유공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의 하울러(Hawler) 광구에서 1차 탐사정(Demir Dagh-2) 시추 결과 원유를 발견했다고 3월27일 발표했다.

하울러 광구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인 아르빌(Arbil)을 포함하는 면적 1532㎢의 육상광구로 스위스 석유기업 Oryx가 지분 65%를 보유하고 있으며, 석유공사가 15%, 쿠르드 자치정부가 20%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.

석유공사에 따르면, 2012년 7월 중순에 1차 시추를 시작한 이후 총 3개의 저류층에서 하루 약 1만배럴의 원유 산출에 성공했다.

석유공사는 탐사 및 평가 시추작업을 계속 벌여 잠재 자원량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.

또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하울러를 포함해 바지안(Bazian), 상가우사우스(Sangaw South) 등 총 3개 광구에서 탐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

쿠르드 지역은 현재까지 48개의 광구가 분양됐으며, 2011년 10월 미국의 ExxonMobil을 필두로 프랑스 Total, 미국 Chevron 등 석유 메이저들이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3/03/27>

Copyright © 1991 by CMRI